**어렵더라도 순종하라! /월리스 해플린 2세**

****

† 어렵더라도 순종하라!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기가 그리 쉬운 것은 아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음성대로 순종하기에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

그 효율성에 확신이 가지 않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 부모님은 1937년 이곳 버지니아의 리치몬드에 오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의 행동은 어리석기 짝이 없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다른 고장에서 각기 목회를 하고 있었는데,

두 교회 모두 한창 부흥의 물결을 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인들이 언제나 지하실의 저장창고를 가득가득 채워 주었고,

땔감이며 생활용품들을 풍부히 제공해 주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생활은 실로 유복하기까지 하였다.

심지어 부모님은 당대의 최신형 자동차를 구입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은 왜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을까?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하나님은 때때로 '적절한 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입장을 배려해 주지 않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즉시'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처한 상황에 잘 맞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아니 대부분의 경우 우리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상하지 못한 큰 복을 내려 주신다.

(월리스 해플린 2세가 지은 “하나님의 일곱 가지 목소리” 중에서...)